

아리울의 군산

발행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전화 063-443-8283 | 팩스 063-443-8284 | <http://museum.gunsan.go.kr> | <http://mum.gunsan.go.kr>

* 박물관 행사

박물관이 살아있다. 1930년대 군산으로 go!go!

전국 박물관 최초 시대극 공연. 자원봉사 팀의
'1930년대 군산을 연기하다'.

전국 박물관 최초 자원봉사자들이 연기하는 시대극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펼쳐진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점들을 연극자 두 분과 인터뷰해
보았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A1. 저는 강정자라고 합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A2. 저는 김재숙이고 저도 그냥 동네 아줌마입니다.

Q. 연극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 A. 관람객들에게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Q. 자원봉사 팀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극은 한 번도 배우신 적이 없으신지요?

- A. 당연히 한 번도 연극을 배워본 적이 없죠. 하지만 연극을 배우면서 새로움을 느꼈고 내면의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극단 동당애에서 저희 연극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연극을 지도해주신 김관용, 강나루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Q. 연습 중 에피소드나 고충 같은 건 없었나요?

- A. 정말 연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 처음엔 정말 힘겨웠죠. 하지만 지금은
보람차답니다! 우리 연극단원 모두 오디션을 통해 뽑혔으니 기대하세요.

Q. 공연 후 관객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 A. 군산의 뼈아픈 근대 역사를 알리고 잊힌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주시리라 믿어요. 또 저희의 연기로
관객들의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까요?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 A.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연극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마추어 연기자들로 이루어진 극단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매 회 최선을 다해 연기하고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들른다면 한번쯤 공연을 보고가길 바란다.
공연은 토요일 오후 3층 근대생활관에서 펼쳐진다.



* 박물관 테마기행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전북의 문화의 중심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아서

부모님이 집안의 족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가문의 전통을 자녀에게 교육하듯 국립전주박물관은 1990년 개관한 이래 전라북도의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고 교육하고 있다.

정문에서 본관건물까지는 산책로처럼 잘 정비된 정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본관을 바라보고 오른편으로 야외전시장에 펼쳐져 있어 산책을 하며 고분을 살펴볼 수 있다. 왼편으로는 ‘느리게 걷기’란 휴게실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문화체험관 건물이 있다. 문화체험관에는 1층에 석전기념실과 시민갤러리, 터치 뮤지엄실이 있다. 서예가 석전 황욱 선생의 작품과 수집품 150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터치 뮤지엄실에서 전시물을 만질 수도 있다. 문화체험관을 나오면 박물관의 가장 깊은 곳에 기와를 얹은 2층 높이의 위풍당당한 본관 건물을 만난다. 1층에 사무실과 고대문화실,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강당, 터치뮤지엄이 있고 2층에 민속실과 미술실이 있다. 고대문화실에는 유물 570점이 전시되어 있고 특히 고대문화의 높은 수준을 대표하는 익산 왕궁리 오층 석탑 출토의 국보 제 123호 사리장엄구도 만날 수 있다. 미술실에서는 전북을 대표하는 200여점의 현대적감각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민속실로 이동하면 전북의 옛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수집, 보존, 연구, 전시뿐만 아니라 전북도민들의 다양한 연령에 따라 박물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세분화하고 전문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역사를 익히는 곳, 학생들에게는 역사문화를 유물과 유적을 통해 입체적으로 익히는 곳, 성인과 노령층에게는 평생학습을 하는 곳, 외국인들에게는 전북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곳으로,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터치뮤지엄을 통해 만져서 감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전북 문화를 만나기 위해 찾는 박물관은 하루만으로는 부족하다. 계획을 세워 수차례 찾아보고 기획과 전시를 미리 검색하여 참여해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15일까지는 기획전시실에서 <조선의 여성문학, 천리에 외로운 꿈>특별전이 있고 4월 16일 까지 민속실에서 <그림에 담은 염원, 무신도>를 5월 28일까지 미술실에서 <최석환과 포도그림>을 만나볼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지만 정원은 개방 되고, 평일 9:00~18:00, 토,일,공휴일은 1시간씩 연장, 3월~10월까지 매주 토요일은 21:00시까지 야간개장을 한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전주시 완산구 쇠고개로 249에 위치하고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학생기자 이제하(고2)

* 독자투고

근대역사 박물관에 견학을 다녀온 후...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항상 1년에 한 두번있는 역사탐방
방학이었다.

엄마 추천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근대역사박물관을 갔는데 그곳은 전국
최초의 근대 역사 유물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기증을 해주신 물건이라고
해서 좀 놀랐다.

입구 왼쪽에는 등대로는 최초로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어청도 등대’가
자리잡고 있었다. 새삼 군산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1층에는 최호 장군이 신으셨다는 가족신도
있었는데 꽤 불편해 보였고, ‘요여’라는
아주 작은 가마를 보았는데 그것은 옛날
부잣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상여가 나가기
전에 앞에 영혼을 실고 나가는 가마였다고
한다. 엄마도 여기서 처음 보는것이라고
했다. 어쩐지 너무 작은 가마라고
생각했는데 좀 으스스하기도 했다.



3층에 있는 근대생활관은 ‘1930년대
어느가을 해질녘’이라는 주제로 지금
시내의 영동거리를 그 시대에 맞게 재현해
두었다. 그때는 중국인이 경영했던 잡화점
(알록달록 사탕이 탐났던 곳),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인력거조합, 그리고 드물게 있던
한국인이 했던 고무신 가게, 일본인 술집이
있었다. 인력거에 앉아 보니 내가 부자집
아씨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지금은 제일고라고 이름이 바뀐 ‘영명학교’
는 군산에서 3.1운동이 시작된 곳이라고 한다
. 그곳에 가 앉아보니 나도 옛날 학생이 된
것 같았고 만세도 불러야 할 것도 같았다.
도심지의 좋은 집과 건물들은 일본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콩나물
고개 같은곳으로 밀려올라가서 토막집(옛날
움집인줄 알았다)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끔찍하다.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역사를 알수
있는 곳이 있어서 신기하면서도 가슴
아픈일이 많은 우리역사가 슬프기도 했다.
설마 또다시 이런일은 생기지 않겠지?



* 군산의 역사문화 살피기

그
중
심
에
년
는
전
군
산
의
경
제
수
탈
을
재
현
한
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민족에 있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역사이다.
과연 그 생지옥 속에 우리의 군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당시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군산은 한반도의 곡창 지대인 호남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군산이 항구도시라는 점이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항목은 사실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띄고 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군산에서의 경제적 수탈은 대부분이 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개항~강점기 사이에도 물론 미곡 공출은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미곡 공출이 시작된 시기는 20년대 이후, 즉 산미 증식
계획(1920~1934)부터가 시작이었다.

구체적인 배경은 일본의 농업 인구 다수가 공업 분야로 직업을 바꾸어 식량
생산 노동력이 급격히 줄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의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쌀에 관세를 크게 붙였고,
한술 더 떠 미곡 상인들과 지주
들의 매점매석이 국내 식량
사정을 어렵게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쌀값 폭등으로 일본 전국
에서 대규모 시위가 퍼지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반도의 쌀을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명목 아래 빼앗아간
뒤, 일본의 식량난 회복에 사용한 것이었다. 물론 쌀의 증산량은 늘었어도,
정해진 수탈량은 그대로 가져갔고, 결과적으로 수확량 이상의 쌀을 빼앗긴
한국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쌀을 이용한 수탈은 이뿐만이 아니다.

군산에는 주식시장처럼 주식 대신 쌀을 이용하는 미두장이 존재했었는데, 쌀이
모이는 항구에는 수많은 쌀 창고와 쌀 중매점의 상인들이 쌀을 이용해 온갖
횡포를 부렸다. 물론 중매점 대다수 주인은 일본 상인들로, 쌀을 사고 팔며
폭리를 취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에 맞서 한국인들이 쌀을 이용해 우리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미곡 싸움
(?)’에 뛰어들어도 물량, 자본 그리고 조직력에서 일본인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한국인들은 도저히 일본인들에게 맞설 수가 없었다. 심지어 당시
한국인들 사이에는 “미두에 손을 대면 백이면 백이 다 망한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사람의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쌀이 되려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에 이용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어머니 세상에나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그 노력의 결실은 지금의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런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을 물어보면 모두들 당연하다는 듯이 미국의 ‘라이트 형제’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비행기는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을까?

세계최초의 비행기인 ‘비거’ 는 임진왜란 당시 김제출신의 무관 ‘정평구’ 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비거’ 라는 이름은 하늘을 나는 수레라 하여 ‘비거’ 라고 불려졌고, ‘비차’ 라고도 한다. 비거는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포위된 진주성에 들어가 사람들을 피신 시켰고, 또한 비거를 이용해 폭탄을 던져 왜군을 교란시키기도 하였다고 한다. 조금이나마



‘비거’ 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보자면 조선 후기 실학자인 ‘신경준’ 의 ‘여암전서’ 의 ‘책자제’ 에는 ‘임진 연간에 영남의 읍성이 왜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성의 우두머리에게 비거의 법을 가르쳐, 이것으로 30리 밖으로 날아가게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영남의 진주성이 왜군에게 포위되자, 정평구는 평소의 재간을 이용하여 만든 비거를 타고 포위당한 성 안에 날아 들어가, 30리 성 밖까지 친지를 태우고 피난시켰다고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규경’ 이라는 사람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의 ‘비거변증설’ 에

하늘을 나는 수레

역사에 잊혀진 세계 최초의 비행기 조선의 ‘비거’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영남의 어느 성이 왜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 성주와 평소 친분이 두텁던 어떤 사람이 나는 수레, 비거 를 만들어서 성중으로 날아 들어가 성주를 태워 30리 밖에 이름으로써 인명을 구했다.’ 고 기록되어 있다.

또 그는 ‘강원도 원주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비거 에 관한 책을 소장하고 있거니와 이 비거 는 4명을 태울 수 있으며, 모양은 따오기(혹은 고니)와 같은 형으로서 배를 두드리면 바람이 일어서 공중에 떠올라 능히 백장을 날 수 있되 양각풍이 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광풍이 불면 추락한다 하더라.’ 라고도 기록 하였다.

‘이규경’ 은 전주부인 ‘김시양’ 에게 들은 말도 기록했는데 ‘윤달규’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명재’ 의 후손이다. 이 사람이 정밀하고 교묘한 기구를 만드는 재간이 있어 비거를 창안하여 기록하여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정평구’ 외에도 ‘윤달규’ 라는 사람도 비거를 만들 수있었던걸로 보인다.

하지만 날으는 수레인 ‘비거’ 를 최초의 비행기로 인식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것은 ‘라이트 형제’ 의 비행기와는 다르게 동력장치가 없다는 것인데, 비거는 날개와 깃을 이용해 바람을 만들고 거기다 풀무의 배를 두드리려 또 바람을 만드는 원리이다. 최초의 ‘무동력 비행기’ 나 ‘행글라이더’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의 기록 가운데 ‘고대 지리서’ ‘산해경’ 이라든지, 진나라의 ‘장화’ 가 쓴 ‘박물지’ 에 은나라 탕왕시절의 기광국인이 타고 온 비거가 나오며, 북송의 시인 ‘소식’ 의 ‘금산묘고대시’ 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비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은나라 시절의 ‘기광국’ 의 ‘비거’ 는 너무 오래되어 정확하지 않으며, 너무 오래된 기록이다.

그러나 우리의 ‘비거’는 적고 ‘하더라’식의 기록이긴 하지만 일본측의 기록인 ‘왜사지’에서도 ‘비거’가 진주성에서 활약했다는 내용이 있고, 비거를 움직이는 법과 얼마정도 날 수 있는지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역사스페셜’ 팀이 복원한 비거는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20m높이에서 70m를 날 수 있었다. 완전한 형태의 ‘비거’는 더 먼거리를 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도 ‘비거’가 ‘최초의 비행기’였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당시 우리 조상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음을 짐작 할 수 있으며, 그 당시에 하늘을 난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이었는데, 그런 훌륭한 발명품이었던 ‘비거’가 후세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잊혀졌는지에 의구심이 든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학생기자 민경원(고3)

“박물관을 살아있다” 전국 박물관 최초 시대극 공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1930년 시간여행’

연극공연

전석 매진!

연출 : 극단 등당애
출연 : 박물관 자원봉사팀

**전국 박물관 최초로 살아있는 박물관 조성
박물관 자원봉사자들의 시대극 공연!!**

시간: 토요일 오후(15분간), 장소: 3층 근대생활관